

11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편지글을 써 봅시다.



글에서 묘사하는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제 방은 탑의 위층, 북서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이 탑은 새로 부속 병원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전염병실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제 방은 창문이 둘 있고 전망도 좋습니다.

제 방을 어떻게 장식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갈색과 노랑의 교향악입니다. 벽은 염색하지 않은 가죽 같은 빛깔이어서 노란 커튼과 방석, 그리고 갈색 책상 한 개와 등나무 의자 한 개, 그리고 한가운데에 잉크 얼룩이 있는 갈색 카펫을 깔아 놓았어요. 그 얼룩 위에 의자를 배치했지요.

두 개의 창문이 너무 높아서 앉은 자세로는 밖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서랍장 위쪽을 천으로 씌워 창가에 바짝 붙여 놓았지요. 창가에 앉기에는 안성맞춤의 높이예요. 서랍을 모두 빼놓고 그것을 층계 삼아 올라간답니다. 정말 편리해요!



키다리 아저씨

록월로 농장에서 토요일 밤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

지금 막 도착해서 짐도 풀지 않았어요. 농장이 얼마나 제 마음에 들었는지 당장 알려 드리고 싶어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신나는 곳이 이 세상에 있었다니요!

집은 여기에 그린 그림처럼 네모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확실히 100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는 그릴 수 없지만, 옆으로 베란다가 있고 정면에는 아담한 현관이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이 집의 진면목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어요.



깃털로 된 먼지떨이처럼 보이는 것이 단풍나무이고, 찻길 양옆에 있는 가시 돋친 듯한 나무는 산들거리는 소나무와 솔송나무입니다. 언덕 꼭대기에 집이 있어 몇 마일이나 펼쳐진 아득한 파란 목장 저편에 있는 여러 개의 언덕 능선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물결이 일고 있는 듯한 모습이 코네티컷주 마르셀 웨이브(굴곡이 심한 물결 모양)예요. 그리고 록월로 농장은, 바로 그 하나의 물결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지요. 전에는 축사들이 길 건너에 있어 전망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친절할 벼락님이 하늘에서 떨어져 축사들이 다 불타 버렸대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셴플 씨 부부와 하녀 한 사람, 고용된 두 사람에게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셴플 씨 부부와 저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로 햄과 달걀과 비스킷과 꿀, 젤리 케이크와 파이와 피클과 치즈를 먹고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태껏 이렇게 남을 재미있게 해 준 적은 난생처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우스운가 봐요. 하긴 한 번도 시골에 와 본 일이 없으니 제 질문이 모두 어리석은 것들뿐이었을 거예요.

그림에서 x표를 한 곳은 살인 현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쓰는 방이라는 표시입니다. 큼직하고 네모반듯하며 널찍한데, 멋진 골동품과 가구와 열어 놓으려면 막대기로 받쳐야 하는 아래위로 여닫는 창문이 있어요. 또 건드리기만 하면 부스러져 떨어질 것 같은, 금실로 테두리를 두른 초록색 차양이 있어요. 그리고 크고 네모난 마호가니 책상이 하나 있는데, 이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괴고 소설을 쓰면서 이번 여름을 지낼 작정입니다.



아아, 아저씨, 저는 지금 몹시 들떠 있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답니다. 지금은 8시 30분, 촛불을 끄고 자려는 참입니다. 이곳에서는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아저씨는 이렇게 즐거운 생활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제가 정말 주디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아저씨와 은혜로운 하느님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더욱, 더욱, 더욱 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올림

추신: 개구리들의 노랫소리와 새끼 돼지들의 울음소리를 들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초승달도 보여 드리고 싶고요! 달을 제 오른 쪽 어깨너머로 보았답니다. (오른쪽 어깨너머로 초승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1 「키다리 아저씨」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어떤 일을 쓴 편지인가요?

2 주디가 농장 식구들에게 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3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어떤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 하나요?


2 「키다리 아저씨」에서 그림을 그린 듯 생생하게 표현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

.....

.....

.....



3 밑줄 친 곳에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봅시다.

보기 주디는 록월로 농장을 _____ 자랑을 했다.

입에 발린 소리로

입안의 혀와 같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4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을 넣어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봅시다.

.....

.....

.....

.....

.....

.....



5 글에서 묘사된 내용과 어울리는 삽화를 상상해 봅시다.

둘리틀 선생은 나를 데리고 나가 정원을 구경시켜 주었다. 집이 흥미롭다면 정원은 그보다 백 배쯤 더 흥미로웠다. 지금까지 본 정원 가운데서 가장 쾌적하고 가장 매력적이었다. 처음에는 얼마나 큰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도무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이제 틀림없이 다 구경했다 싶을 때도 산울타리 위를 넘겨다보거나 모퉁이를 돌거나 계단을 올라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곳이 펼쳐졌다.

정원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넓디넓은 잔디밭에는 푸른 이끼가 낀 돌의자가 있었다. 잔디밭 위로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깃털 같은 버드나무 가지가 벨벳 같은 잔디를 스쳤다.

산울타리에는 입구가 나 있었다. 입구 위에는 살아있는 나무를 다듬어 만든 꽃병이나 공작이나 반달 같은 모양이 장식되어 있었다. 채마밭을 따라 서 있는 높은 벽돌담에는 햇살을 받아 익어 가는 분홍색과 노란색의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거대한 멋진 참나무도 있었는데 나무줄기에는 네 사람이 들어가 숨어도 될 만큼 큰 구멍이 나 있었다.

정자도 많았다. 나무로 지어진 것도 있고 돌로 지어진 것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책이 가득 차 있었다. 어느 구석, 바위와 고사리 사이에 옥외 취사장이 있었는데, 선생은 야외에서 식사하고 싶을 때면 거기 가서 간이나 베이컨을 튀기 고는 했다.



배움 다지기

-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묘사하여 편지글을 썼나요?

